

# 『黃帝內經靈樞』에 기재된 三焦에 관한 小考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韓醫學研究所  
河洪基·金基郁·朴炫局\*

## A Study on San Jiao(三焦) stated on 『Ling Shu(靈樞)』

Dept. of Oriental Medical Classics,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Dongguk University  
Ha, Hong-Ki. Kim, Ki-Wook. Park, Hyun-Guk.

According to the result about 'San Jiao(三焦)' recorded on 『Yellow Empero's Canon Internal Medicine Ling Shu(黃帝內經 靈樞)』, we achieved following results.

1. As we consider the concept of 'San Jiao' recorded on 『Ling Shu』, in early time, it was related to bladder(膀胱) and there was no divided concept into 'Shang Jiao(上焦)', 'Zhong Jiao(中焦)' and 'Xia Jiao(下焦)'. Later, there was appearance of body metabolism concept in anatomic way and started to emphasize that stomach(胃) is the very beginning of digestion. This point then adjusted into the concept which the core theory of digestion and water metabolism begins with 'Zhong Jiao' and processes to 'Shang Jiao' and 'Xia Jiao' then it established the 'San Jiao' theory adjusted to the functional change than property change. Later as there is set theoretical structure of 'three Yin and three Yang(三陰三陽)', it included the concept of 'San Jiao' onto meridian system theory to complete as a theory. Finally, it completed the theoretical structure that 'San Jiao' runs water metabolism of circulation, body fluid and urine for body to produce blood and Qi to protect and provide nutrition to the human body.
2. From the point of each part, 'San Jiao' means all body composition factor related to the relation to the digestion and water metabolism to produce Qi and blood. Also, the details of entire function of 'San Jiao' tells that 'Zhong Jiao' intakes food and divides the clarity and turbidity of digested substances. The origin of this digestion and water metabolism lies at Xia Jiao. The clean substance including the mood and taste climbs via Shang Jiao. The vapor like substance climbed to Shang Jiao becomes 'defensive Qi(衛氣)' and controls body temperature and sweat by supporting and spreading the Qi by Shang Jiao. The liquid substance climbed to Shang Jiao becomes blood. The blood has stronger character as substance than defensive Qi so Zhong Jiao becomes the base and the way for the blood. The turbid Qi separated at Zhong Jiao passes large intestine and the solid substance is excreted and the liquid is absorbed into bladder. The Xia Jiao that controls this process controls the liquid state of water metabolism so control the urine with bladder. Therefore, 'San Jiao' can be understood as a general concept that controls entire water metabolism as a way of food, Qi and blood.

**Key Words :** San Jiao(三焦), 『Ling Shu』, water metabolism, Qi

\* 교신저자 : 박현국,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E-mail : parkhg@dongguk.ac.kr. Tel : 054-770-2370

접수일(2011년 7월4일), 수정일(2011년 7월4일),  
게재확정일(2011년 7월19일)

## I. 서론

한의학에서 ‘三焦’는 역사적으로 논란이 많았다.<sup>1)</sup> 먼저 『難經』에서 ‘三焦’를 ‘이름은 있지만 형체는 없다’<sup>2)</sup>라고 언급한 이후, 만약 ‘형체’가 있다면 현대 해부학적인 실질장기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부학적인 실질장기를 三焦에 연관시키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up>3)</sup> 반면에 장기의 실질의 유무보다는 기능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sup>4)</sup>

또한 三焦는 上焦, 中焦, 下焦의 세 부위로 구성되어 三焦의 기능을 上焦, 中焦, 下焦의 세 부위의 기능으로 나누어 생각하게 하였다. 그러나 세 부분의 해당하는 장부가 주관하는 기능이 별도로 존재하고 全身을 대상으로 하는 계통적인 구조도 존재하므로, 세 부분에 위치하는 장부를 기계적으로 합하여 三焦의 생리적 기능이라고 말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 이는 三焦가 단수명사인지 복수명사인지에 대해 연구<sup>5)</sup>와 ‘焦’에 관한 연구<sup>6)</sup>도 진행되었다. 즉 ‘五臟六腑’, ‘奇恒之腑’, ‘傳化之腑’라는 말도 공통적으로 ‘腑’라는 접미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 ‘焦’라는 접미사는 三焦와 관련된 上焦, 中焦, 下焦에 한정적으로 사용된다. 이는 ‘六腑’에 三焦가 포함되기는 하지만<sup>7)</sup>, 다른 ‘腑’들과는 분명한 차이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三焦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sup>8)</sup>

『黃帝內經靈樞』(이하 『靈樞』라 함)는 초기 한의학의 형성 시기에 나타나는 경맥체계 이론의 성립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서적이며, 馬王堆 出土醫書에서 맹아가 나타난 經脈體系는 현재 사용되는 12經脈의 ‘如環無斷’한 12經脈체계로 형성되는 과정을 유추할 수 있다.

書誌學的으로 볼 때 ‘三焦’의 개념은 馬王堆 出土醫書에서 ‘焦’는 ‘인체의 구조를 설명하는 용도가 아닌 약물을 조리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고, 漢代 이전의 주요문헌에는 ‘三焦’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sup>9)</sup>. 즉 『靈樞』가 成書된 시기 이후에 ‘三焦’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으로 보이며 다른 臟腑보다 늦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는 三焦가 해부학적으로 나타나는 실질 장기가 아닌 의학

作爲六腑之一的呢? 這是因爲在六腑的早期概念中不包括三焦. 「五臟六腑」之說, 最早出現於《呂氏春秋·恃君覽達鬱》之中. 六腑者何也? 《太平御覽》卷三六三引《韓詩外傳》之佚文. 有如下述: ‘何謂六腑, 咽喉量入之腑, 胃者五穀之腑, 大腸轉輸之腑, 小腸受成之腑, 膽積精之腑, 膀胱精液之腑也.’ 不是三焦, 而是咽喉爲六腑之一.”

- 8) 三焦의 부위와 기능에 대해 광범위하게 연구한 것(배정화, 홍무창. 三焦의 기능과 병증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생리학회지. 1983. 4(2).)이 있었고, 三焦와 相火의 개념을 자연계의 현상을 도입하여 설명한 연구(박찬국. 三焦와 상화.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8. 1(2).)가 있었다. 이후에는 三焦에 대해 의가별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張仲景(이경호, 안규석. 張仲景의 三焦 인식에 관한 문헌적 고찰. 동의병리학회지. 1991. 6.)과 章楠(김규열. 章楠 『醫門捧喝』의 少陽三焦膀胱辨에 대한 文獻의 考察. 대한원전학회지. 1993. 7.)과 張景岳(박혁규, 맹용재. 장경약의 三焦包絡命門辨에 관한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1998. 11(1).)의 三焦에 관한 사상을 연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靈蘭秘典論』에서 서술된 三焦의 개념에 대한 연구(방정균. 영남비전론에 기재된 三焦에 대한 이해. 대한한학회지. 2005. 26(1).), 三焦와 命門과 心胞에 대한 이해(권영규. 心胞, 三焦, 命門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제3의학. 1998. 3(1).), 한의학적 인체 발생학에서 三焦의 생성에 대한 연구(김경신, 이태경, 강경수, 김병수. 五臟오부에서 三焦를 형성하여 五臟六腑가 되는 장부의 발생학적 연구.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09. 22(4).) 등이 三焦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들이다.
- 9) 『春秋左傳』, 『春秋穀梁傳』, 『春秋公羊傳』, 『毛詩』, 『爾雅』, 『尚書』, 『儀禮』, 『禮記』, 『周禮』, 『周易』, 『孝經』, 『論語』, 『孟子』, 『論衡』, 『呂氏春秋』, 『淮南子』 등에서는 ‘三焦’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다.

- 1) 박찬국. 三焦와 相火. 서울. 대한원전학회지. 1988. 1(2). p.16. “한의학에서는 역사적으로도 三焦와 相火에 대한 논쟁이 적지 않게 있어왔다.”
- 2) 凌耀星 主編. 難經校注. 一中社. 北京. 1991. p.52. “心主與三焦爲表裏, 俱有名而無形”
- 3) 박혁규, 맹용재. 대한원전학회지. 1998. 11(1). p.331. “삼초의 가장 중추적 역할에 자율신경계가 핵심을 점하고 있는 것만은 단정을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 4) 박혁규, 맹용재. 대한원전학회지. 1998. 11(1). p.334. “오늘날에는 그 형체의 유무에 대한 시비는 큰 의의가 없고 단지 그 기능적 작용만을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5) 李建民 主編. 山田慶兒 著. 中國古代醫學的形成. 臺北. 東大圖書公司. 2003. p.512. “在以上諸例中, 三焦不是「三個焦」, 明顯是一個「三焦」.”라고 하여 복수의 三焦개념과 단수의 三焦 개념의 차이를 밝혔다.
- 6) 李建民 主編. 山田慶兒 著. 中國古代醫學的形成. 臺北. 東大圖書公司. 2003. p.511. “出屬少陰絡, 下膈, 歷絡三焦(《太素》作焦.)”라고 하여 三焦에서의 ‘焦’는 처음에 ‘焦’와 ‘焦’이 함께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 7) 李建民 主編. 山田慶兒 著. 中國古代醫學的形成. 臺北. 東大圖書公司. 2003. pp.515-516. “儘管如此, 三焦又是如何被

이론의 발전과 함께 만들어진 개념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논자는 『靈樞』의 경맥체계 형성 과정에 산재된 三焦 이론의 생리적 기능적 이해를 통하여 『臟腑論』 중심의 이론을 보완하고자 한다.

## II. 본 론

### 1. 연구 방법

- ① 본 연구의 원문은 金達鎬의 『黃帝內經靈樞』<sup>10)</sup>를 저본으로 하였다.
- ② 『靈樞』에서 ‘三焦’와 관련이 있는 단어인 ‘三焦’, ‘上焦’, ‘中焦’, ‘下焦’를 a) 지칭 부위, b) 경맥 체계의 분석, c) 기능 의의 및 종합적 분석을 고찰 하였다.

### 2. 원문 선록 및 분석

#### ① 「本輸」

“三焦者，上合手少陽，出于關衝……三焦下輸，在于足大指之前少陽之後，出于關中外廉，名曰委陽，是太陽絡也，手少陽經也。”

- a) 三焦 전체를 지칭한다.
- b) 초기 黃帝派의 논술이다.<sup>11)</sup> 「本輸」편은 大腸, 小腸, 三焦가 경락으로 ‘上合’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類經』에서 설명한 것<sup>12)</sup>과 같이, ‘上合’은 하부의 ‘腑’와 상부의 ‘手經脈’을 연결을 위해 만들어진 개념으로 經脈이론의 發展史와 三焦理論의 發展史를 함께 고려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本輸」체계는 의학적으로 五行論이 도입되기 이전의 陰陽論을

기준으로 성립된 초기 부분이므로, 三焦 이론의 발전에서도 초기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三焦의 기운이 下焦에 닿고, 이것이 下焦에서 스며들어간 수액으로 만들어진 소변을 조절하는 膀胱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았다. 上焦와 中焦의 개념은 보이지 않는다.

c) 三焦를 三陰三陽에서 少陽에 배합시키고, 五俞穴의 기능을 말하고 있다. 三焦의 생리적 기능에 대한 서술은 아니다.

三焦者，足少陽太陰之所將，太陽之別也，<sup>13)</sup> 上踝五寸，別入貫膈腸，出于委陽，並太陽之正，入絡膀胱，約下焦，實則閉糞，虛則遺溺，遺溺則補之，閉糞則寫之。

- a) 三焦는 下焦를 지칭한다.<sup>14)</sup>
- b) 초기 黃帝派의 이론이다.<sup>15)</sup>
- c) 三焦가 太陽의 正經과 더불어서 膀胱에 들어가 연락하고 下焦를 묶는다고 한 것과, 虛實의 기능적 측면이 소변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下焦는 膀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三焦 또는 下焦가 소변으로 대표되는 水液代謝를 주관함을 의미하며, 三焦의 생리적 기능을 언급한 내용이다.

三焦者，中瀆之府也，水道出焉，屬膀胱，是孤之府也。

10)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醫聖堂. 2002.

11) 마왕퇴출토의서인 『足臂十一脈灸經』과 『陰陽十一脈灸經』이 시대적으로 『靈樞』보다 앞선다고 볼 때, 經脈학설은 손가락에서 몸통으로 향하는 ‘向心性體系’에서 12개의 맥이 순환하는 ‘循環性體系’로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2)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52. “按諸經皆不言上合，而此下三經獨言之者，蓋以三焦并中下而言，小腸大腸俱在下 而經則屬手，故皆言上合某經也”

13)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醫聖堂. 2002. p.72. “‘太陰’은 당연히 ‘太陽’이라 하는 것이 옳다. 이 三焦는 바로 足少陽膽經과 足太陽膀胱經이 서로 양육하면서 순행하는 것이다.”

14) 三焦經絡이 膀胱에 들어가 下焦에 연락되어, 三焦와 下焦가 서로 다른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膀胱에 연락하여 下焦를 묶는다는 것은 膀胱과 下焦가 인접하여 있다고 볼 수 있다. 三焦가 下焦를 묶는다. 三焦가 실하면 糞閉, 허하면 遺尿라고 한 것은 三焦에 허실이 있다고 본 것이고, 이는 三焦가 부위만이 아닌 기능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三焦는 소변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다는 관점을 표현한 부분이다.

15) 李建民 主編. 山田慶兒 著. 中國古代醫學的形成. 臺北. 東大圖書公司. 2003. pp.22-23. “其問者-答者的組合, 有雷公-黃帝, 黃帝-少師, 黃帝-伯高, 黃帝-少俞, 黃帝-岐伯之五種. 我以為這是黃帝學派內部的流派, 所表現的乃是sub-schools, 取其各個答者之名, 名之爲: 黃帝派, 少師派, 伯高派, 少俞派, 岐伯派. …… 即相對於前期二派求理論性之說明的基礎於陰陽說, 後期三派於陰陽說之外又引入了五行說. 這並不是說前期二派否定五行說, 但只是用作分類原理, 即將五臟分屬五行之分配, 但尚未將五行說用作解說原理.”

a) 三焦는 수문을 조절하는 기능을 언급하였고, 相配되는 臟이 없어 '孤之府'라 하였으며 膀胱에 부속된 기관으로 보았다.

b) 초기 黃帝派의 편장이다.

c) 三焦가 방광에 '屬'한다고 한 것은 水液代謝를 주관하는 의미이며, 방광의 기능 속에 삼초를 포괄한다는 개념은 아니다.

### ② 「經別」

手少陽之正, 指天別于巔, 入缺盆, 下走三焦, 散于中也.

a) 三焦와 缺盆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다.

b) 黃帝와 岐伯의 問答이다. 離合出入하는 十二經脈의 순행경로와 表裏가 相應하는 三陰三陽의 배합관계를 論하<sup>16)</sup>여, 경락체계를 발전시키면서 경락과 장부의 연계시킨 최초의 시도로 三陰三陽의 手足經脈을 서로 합하게 하여 '六合'을 만든 편이 「經別」篇이다. 「本輸」체계의 이론적 발전을 보여준다. '下走三焦'는 複數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은 것을 볼 때, 三焦의 개념이 單數임을 알 수 있다.

c) 少陽脈이 缺盆으로 들어와 三焦 부위로 下行하고 중에 흩어진다. 三焦는 缺盆의 아래에 있다. 本輸 체계에서는 單數의 三焦가 橫隔膜 아래에 있고, 下焦는 膀胱과 인접하게 있다는 것을 함께 생각하면, 아직 三焦는 膀胱 주변에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手心主之正, 別下淵腋三寸, 入中, 別屬三焦, 出循喉嚨, 出耳後, 合少陽完骨之下, 此爲五合也.

a) 心主와 三焦와의 相配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b) 黃帝와 岐伯의 問答이다.

c) 心主脈이 淵腋(겨드랑이 아래 3촌)에서 아래로 내려가 안으로 들어가서 三焦에 속하는 것으로 볼 때, 三焦는 흉복부위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 ③ 「邪氣藏府病形」

三焦入于委陽, 三焦病者, 腹氣滿, 小腹尤堅, 不得小便, 窘急, 溢則水, 留即爲脹, 候在足太陽之外大絡, 大絡在太陽少陽之間, 亦見于脈, 取委陽.

16) 손광락. 경맥체계의 형성과 발전에 관한 문헌적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p.44.

a) 三焦의 病症을 언급하고 있다.

b) 黃帝와 岐伯의 問答으로 '向心性經脈體系'인 「本輸」계열에서의 임상적 완결판이다. 「本輸」체계에서는 三焦를 下焦와 함께 보았고, 三焦가 膀胱을 싸고 있어 소변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았다. 「邪氣藏府病形」에서 六腑 下合穴의 개념이 언급되고 있고 三焦病을 치료할 때는 下合穴인 '委陽'을 이용한다. 이는 膀胱經에 위치하고 있으며, 膀胱의 合穴인 '委中'과 근접하여 위치한 것으로, 三焦와 膀胱의 가까운 관계를 보여준다.<sup>17)</sup>

c) 일반적으로 上焦가 氣를 산포시키고 下焦가 灌溉하는 기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三焦病은 배가 그득해지고 浮腫 등의 병증이 발생한다. 三焦의 기능이 소변을 통한 水液代謝 조절인 것은 맞지만, 腹部와 小腹部의 증상과 부종이나 창만의 증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소화의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다. 이것은 三焦가 복부의 '부위'만을 의미해도 가능한 서술들이다.

### ④ 「五味論」

黃帝曰 鹹走血, 多食之, 令人渴, 何也? 少俞曰 鹹入于胃, 其氣上走中焦, 注于脈, 則血氣走之, 血與鹹相得則凝, 凝則胃中汁注之, 注之則胃中竭, 竭則咽路焦, 故舌本乾而善渴. 血脈者, 中焦之道也, 故鹹入而走血矣.

a) 中焦와 胃, 咽喉, 舌과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다.

b) 黃帝와 少俞의 問答이다. 소화에 있어 胃에서 受納된 五味는 三焦를 통하여 영양물질인 全身으로 布散되어야 하지만, 과도하게 치우친 맛은 순환에 장애를 일으켜 여러 병증을 야기할 수 있다. 上焦, 中焦, 下焦와 기타 장부와의 기능을 三焦 전체의 생리적 기능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c) 中焦는 소화된 기운을 上焦로 보내는 역할을 하며 혈액의 통로가 된다.

黃帝曰 甘走肉, 多食之, 令人悅心, 何也? 少俞曰 甘入于胃, 其氣弱小, 不能上至于上焦, 而與穀留于胃中者, 令人柔潤者也, 胃柔則緩, 緩則蟲動, 蟲動則令人悅心. 其氣外通於肉, 故甘走肉.

17) 手陽明大腸經과 手太陽小腸經의 下合穴이 모두 足陽明胃經에 존재하는 것도 생리적 유사성에 근거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 a) 上焦와 胃 및 肌肉과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다.
- b) 黃帝와 岐伯의 問答이다.
- c) 甘味の 氣는 弱小하여 上焦에 까지 이르지 못하고 胃 가운데에 머무른다. 음식이 胃로 들어와서 上焦에 이르는 것에는 맛의 기운이 필요하다. 먹은 것에서 기운을 꺼내어 사용하는 데에 中焦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sup>18)</sup> 단맛으로 胃에 기운이 머무르면 마음이 흐려지게 한다. 胃에서 기운이 上焦로 퍼지지 못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9)</sup>

### ⑤ 「論勇」

少俞曰勇士者,目深以固,長衡直揚,三焦理橫,其心端直,其肝大以堅,其膽滿以傍,怒則氣盛而張,肝舉而膽橫,眇裂而目揚,毛起而面蒼,此勇士之由然者也.

- a) 勇士의 특징인 三焦의 腠理 모양이 橫行함을 언급하고 있다.<sup>20)</sup>
- b) 黃帝와 少俞의 問答으로, ‘少俞派’는 ‘黃帝學派’에서 비교적 늦은 시기에 등장한 학파로 ‘五行論’을 도입한 특징이 있다. 伯高는 오행의 분류의 원리와 상극에 의한 오행의 작용의 원리로 五味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少俞는 이런 오행의 작용 기전에 있어서 한발 더 진일보한다.<sup>21)</sup> ‘三焦理’는 삼초에 腠理가 있다는 말이고, 이것은 삼초의 형태를 전체로

- 18) 매운 맛은 上焦에 이를 수 있으나, 단 맛은 힘이 약해서 그럴 수 없다.
- 19) 中焦의 기운이 없어서 매운 맛을 먹어도 上焦로 올릴 수 없다는 내용을 찾는다면, 中焦의 역할을 규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 20) 『金匱要略臟腑經絡先後病脈證第一』篇에서는 ‘腠者,是三焦通會元真之處,爲血氣所注. 理者,是皮膚臟腑之文理也.’(최달영·김준기·염용하 공저. 金匱要略釋講. 동국대학교 출판국. 서울. 2004. pp.35-36.)라 하여, ‘三焦가 元氣와 眞氣를 會通하는 곳’이 ‘腠’가 된다고 하였다. 이는 ‘三焦’와 ‘腠’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본 문장의 ‘三焦理’를 ‘腠理’의 다른 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三焦와 腠理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이번의 연구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21) 李建民 主編·山田慶兒 著. 中國古代醫學的形成. 臺北. 東大圖書公司. 2003. p.23. “黃帝, 少師兩派稱爲前期二派, 伯高, 岐伯, 少俞三派爲後期三派. 這是因爲在前期二派與後期三派的理論間, 發現了一個明顯的區別. 即相對於前期二派求理論性之說明的基礎於陰陽說, 後期三派於陰陽說之外又引入了五行說.”, pp.27-28. “少俞派與岐伯派比伯高派更晚出現一事, 可從他們發展了伯高派的學說這一點了解到”

말한 것이다. 가로막힌(橫) 것은 上下로 연결된 기운의 통로를 상징한 것으로 複數의 三焦를 말한다. 본 단락은 상하로 연결된 기운의 통로인 삼초는 해부학적인 실질 장기를 말하고 있다.

c) 용감한 선비의 장부가 곧고 단단하며 단정하면서, 동시에 三焦 무늬가 가로로 놓인 것은 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三焦가 소화와 水液代謝 외에 마음의 기운도 주관하는 것을 말한다.

### ⑥ 「營氣」

上行注腎, 從腎注心, 外散于中, 循心主脈出腋下臂, 出兩筋之間, 入掌中, 出中指之端, 還注小指次指之端, 合手少陽. 上行注臆中, 散于三焦, 從三焦注膽, 出脅, 注足少陽, 下行至跗上, 復從跗注大指間, 合足厥陰. 上行至肝.

- a) 三焦와 臆中과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다 .
- b) 黃帝의 논술이다. ‘如環無斷’한 經脈의 순환을 전체로 한 「經脈」篇에 정리된 체계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론이 완비된 「經脈」篇에 비하여 「營氣」篇은 三焦와 膽을 제외한 陽經에서 관련된 腑를 언급하지 않고, 心包의 개념이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맥 이론의 발전사적 측면에서 본다면 「營氣」篇이 앞서며, 여기에서 ‘手少陽’과 ‘三焦’가 연관된다. 본편에서는 ‘臆中’과 ‘三焦’가 연결되었으나 「經脈」편에서 “三焦手少陽之脈……入缺盆布臆中 散落心包”<sup>22)</sup>라고 하여 三焦와 心包가 相配하기 전에 臆中과 연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 c) 臆中으로 올라와서 三焦에 퍼져서 膽으로 주행한다면, 三焦가 臆中에서 膽의 사이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 ⑦ 「經脈」

心主手厥陰心包絡之脈, 起于中, 出屬心包絡, 下膈, 歷絡三焦.

- a) 三焦와 橫隔膜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다.
- b) 雷公와 黃帝의 問答이다. 「經脈」篇은 三陰三陽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經脈連環’하는 이론을 완성시킨

22)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醫聖堂. 2002. p.343.

편으로 三焦와 心胞를 경락이론으로 연결하고 三焦의 부위를 해부학적으로 명시하였다.

c) 手厥陰心胞脈이 三焦와 연락되는데, 橫隔膜을 뚫고 아래로 내려와서 三焦와 연계된다는 것은 三焦의 위치를 橫隔膜 아래로 정의한 것으로, 생리적 기능에 대한 서술은 아니다.

三焦手少陽之脈, 起于小指次指之端, 上出兩指之間, 循手表腕, 出臂外兩骨之間, 上貫肘, 循臑外上肩, 而交出足少陽之後, 入缺盆, 布膻中, 散落心包, 下膈循屬三焦.

a) 三焦와 橫隔膜과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다.

b) 雷公와 黃帝의 問答이다.

c) 앞의 문장과 마찬가지로 三焦가 橫隔膜 아래에 위치하고 있음을 말한 것이다.

肺手太陰之脈, 起于中焦, 下絡大腸, 還循胃口, 上膈屬肺. 從肺系, 橫出腋下, 下循臑內, 行少陰心主之前, 下肘中, 循臂內上骨下廉, 入寸口, 上魚, 循魚際, 出大指之端. 其支者, 從腕後直出次指內廉, 出其端.

a) 肺脈이 中焦에서 출발하고 大腸과 肺와의 絡屬 관계를 언급하였다.

b) 黃帝와 岐伯의 問答이다. '伯高派'의 소화기 중심의 해부학과 '少俞派'의 오행론의 생리적 해석을 거쳐서 결국 '岐伯派'의 종합정리가 이뤄졌다. 「經脈」篇은 '如環無斷'한 經脈 이론의 순환성을 강조한 편장이다.

c) 經脈이 連環無端하는 이론과 手太陰肺經이 中焦에서 起始됨이 밝힌 편장으로, 만약 中焦가 소화와 관련이 있다면 經脈의 시작도 결국 伯高派의 영향을 받아 穀氣에서 된다고 볼 수 있다.<sup>23)</sup>

⑧ 「平人絕穀」, 「四時氣」, 「大惑論」, 「決氣」 등.<sup>24)</sup>

「平人絕穀」

23) 岐伯派의 저작으로 「經脈」篇보다 시기적으로 먼저인 「營氣」篇에서도 '營氣之道 內穀爲寶, 穀入於胃 乃傳之肺 流溢於中 布散於外'라고 하여 胃가 순환의 시작임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胃를 중시하는 사상은 伯高派의 저작인 「五味」(「胃者 五臟六腑之海也」) 등에 잘 나타나고 있다.

24) '伯高派'와 관련된 편으로, 위장을 중심으로 한 上焦와 下焦의 부위를 지칭하여, 三焦의 소화와 水液代謝 조절 기능을 밝혔다.

黃帝曰: 願聞人之不食, 七日而死, 何也. 伯高曰: 臣請言其故. 胃大一尺五寸, 徑五寸, 長二尺六寸, 橫屈受水穀三斗五升, 其中之穀, 常留二斗, 水一斗五升而滿, 上焦泄氣, 出其精微, 標悍滑疾, 下焦下瀉諸腸.

a) 上焦와 下焦의 생리적인 기능을 설명하였다.

b) 黃帝와 伯高의 問答으로, '伯高派'는 해부학을 중심으로 水穀의 代謝過程을 정리하였다. 五味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 몸에 기를 순환시키는지 하는데 관심을 가졌으며 그것을 통해 기의 유행을 개량화하고자 하였다.

c) 水液代謝의 과정에서 기체 상태는 上焦에서, 액체 상태는 下焦가 담당한다.

「四時氣」

小腹痛腫, 不得小便, 邪在三焦約, 取之太陽大絡. 視其絡脈與厥陰小絡結而血者, 腫上及胃脘, 取三里.

a) 三焦와 小腹과의 관계성을 언급하고 있다.<sup>25)</sup>

b) 黃帝와 岐伯의 問答이다.

c) 小腹이 붓고 소변이 나오지 않는 것을 三焦가 묶인 것으로 보았다. 이는 부위의 三焦로 三焦의 괄약하는 곳에 邪氣가 있는 것으로, 초기 개념인 膀胱과 관련이 있는 단수 三焦의 개념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三焦가 水液代謝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大惑論」

黃帝曰 其非常經也, 卒然多臥者, 何氣使然? 岐伯曰 邪氣留於上焦, 上焦閉而不通, 已食若飲湯, 衛氣留久於陰而不行, 故卒然多臥焉.

a) 上焦와 衛氣와의 관계를 언급하였다.

b) 黃帝와 岐伯의 問答이다.

c) 水穀의 精微함이 上焦를 통해 衛氣로 순행해야 하는데, 邪氣가 上焦에 있어서 소화가 안되고 음부 위에 기운이 머물러서 유행하지 않아서 갑자기 잠을 많이 자게 된다.

25) 胃脘에 대한 언급이 있으나, 생리적 기전보다는 경락적인 관련만 말하고 있으므로 분석에서는 제외함.

「決氣」

岐伯曰 上焦開發, 宣五穀味, 熏膚充身澤毛, 若霧露之漑, 是謂氣.

- a) 上焦와 皮膚 및 毛와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 b) 黃帝와 岐伯의 問答이다.
- c) 上焦는 五味를 받아 펼처서 皮膚의 소통을 주관하는 기능을 한다. 上焦의 이런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氣’이다.<sup>26)</sup>

岐伯曰 中焦受氣, 取汁變化而赤, 是謂血.

- a) 中焦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 b) 黃帝와 岐伯의 問答이다.
- c) 中焦는 곡기를 받아서 변화시켜 피를 만든다.

⑨ 「脹論」

三焦脹者, 氣滿于皮膚中, 輕然而不堅.

- a) 三焦와 皮膚의 관계성을 지적하고 있다.
- b) 黃帝와 岐伯의 問答이다.
- c) 기능적 측면 보다는 해부적 측면의 三焦로 의미한 것으로 三焦가 기운의 소통을 주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皮膚 중에 가벼운 듯하며 단단하지 않은 것은 기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sup>27)</sup>

⑩ 「五癢津液別」, 「九鍼論」 등.

「五癢津液別」

岐伯曰 水穀皆入于口, 其味有五, 各注其海, 津液各走其道. 故三焦出氣, 以溫肌肉, 充皮膚, 爲其津. 其流而不行者爲液.

26) 上焦가 열려 받아들인 五味를 펼치고 피부를 熏蒸하고 몸을 가득하게 하고 털을 윤택하게 하여 촉촉하게 하는 실체는 氣(衛氣)이다. 上焦를 여는 것도 氣의 역할이고 五味가 변화된 것이 氣이며 그 氣가 몸을 가득하게 한다. 上焦는 氣를 이용해 衛氣를 퍼트리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體內를 循行하는 것은 각종 氣와 血, 津液 등이 되고, 臟腑는 공간을 제공하여 이들이 循行하는 구조를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다. 『靈樞』의 이런 관점은 ‘三焦’가 ‘命門’의 使로 ‘相火’기능의 場으로 본 ‘溫補學派’와 차이가 있다.

27) 營血이 만들어진 다음 경수 안을 순행하는데, 그 다음에는 三焦와 특별히 관계가 없어 보인다. 그래서 기질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 a) 三焦와 肌肉 및 皮膚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 b) 黃帝와 岐伯의 問答이다.
- c) 三焦는 氣가 나가는 통로가 되며, 나간 氣는 津液으로 나뉜다. 三焦는 기 순환에 깊이 관여한다.

「五癢津液別」

天暑衣厚則腠理開, ……陰陽氣道不通, 四海塞閉, 三焦不寫, 津液不化,

- a) 津液의 生成에서 三焦 및 臟腑의 연관을 언급하고 있다.
- b) 黃帝와 岐伯의 問答이다.
- c) 陰陽의 氣道가 不通하면 四海가 閉塞하고 三焦가 不寫하고 津液이 不化한다고 하여 수액대사의 병리적인 현상인 閉塞, 不寫, 不化가 나타난다고 볼 때 三焦는 水液의 배설에 관여한다고 보아야 한다.

水穀并行腸胃之中, 別于廻腸, 留于下焦, 不得滲膀胱, 則下焦脹, 水溢則爲水脹, 此津液五別之逆順也.

- a) 下焦와 胃, 廻腸 및 膀胱과의 연관을 언급하고 있다.
- b) 黃帝와 岐伯의 問答이다.
- c) 下焦가 水液代謝에 관련이 있다. 下焦는 廻腸과 膀胱사이에서 수액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膀胱으로 수액이 스며들지 않으면 下焦가 그득해지고 수분이 넘치면 ‘水脹’이 된다. 이것은 下焦가 膀胱으로 수액을 보내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九鍼論」

六府氣, 膽爲怒, 胃爲氣逆噦, 大腸小腸爲泄, 膀胱不約爲遺溺, 下焦溢爲水.

- a) 六腑에서 下焦의 病症을 언급하고 있다. 膽, 胃, 大腸小腸, 膀胱, 下焦를 같은 반열에 두고 있다.
- b) 黃帝와 岐伯의 問答이다.
- c) 下焦가 넘치면 水病이 된다. 下焦는 膀胱과 함께 水液을 灌溉하는 역할을 한다.

⑪ 「本臟」

腎合三焦膀胱, 三焦膀胱者, 腠理毫毛其應.

a) 腎과 三焦·膀胱을 상배하고 腠理 및 毫毛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다.

b) 黃帝와 岐伯의 問答이다. ‘三焦膀胱’이라는 단어만을 고려한다면 초기의 문헌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本篇의 전체적인 내용이 五行論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아, 이는 의학에 五行論이 도입된 이후의 저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五行論이 도식적인 구조로 적용되지 않고 기능적으로 다양한 활용을 보이고 있는 점은 醫學理論이 五行論을 자유롭게 응용할 수 있는 정도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c) 三焦가 水液代謝를 주관함을 확인할 수 있다. 本篇에서 집중적 사용된 ‘三焦膀胱’이라는 단어는 三焦와 膀胱이 생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腠理와 毫毛가 應한다는 것은 皮膚와 汗의 생리에 三焦가 연관된다는 말로 三焦가 水液代謝를 주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腎應骨。密理厚皮者，三焦膀胱厚。粗理薄皮者，三焦膀胱薄。疏腠理者，三焦膀胱緩。皮急而無毫毛者，三焦膀胱急。毫毛美而粗者，三焦膀胱直。稀毫毛者，三焦膀胱結也。

a) 三焦와 腎, 皮膚, 毫毛 및 膀胱과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삼초의 해부학적인 형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b) 黃帝와 岐伯의 問答이다.

c) 앞의 문장과 같이 三焦膀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三焦와 膀胱과의 관계를 강조한 단어의 사용은 三焦의 역할 중 水液代謝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sup>28)</sup>

⑫ 「師傳」

六腑者，胃爲之海，廣骸大頸張胸，五穀乃容。鼻隧以長，以候大腸。脣厚，人中長，以候小腸。目下果大，其膽乃橫。鼻孔在外，膀胱漏泄。鼻柱中央起，三焦乃約，此所以候六

28) 本篇의 五臟과 관련된 구성에서 ‘肺-皮-大腸’, ‘心-皮-脈’, ‘脾-肉-膈-胃’, ‘肝-爪-膽’, ‘腎-骨(腠理, 毫毛, 皮膚)-三焦膀胱’으로 되어있는데, ‘腎臟’과 ‘三焦’, ‘膀胱’ 및 ‘骨’ 등과의 관계가 다른 臟에서와 달리 명확하지 않다. 이는 ‘臟象’을 살펴보기 위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骨’을 대신해 ‘腠理’, ‘毫毛’, ‘皮膚’ 등의 여러 신체 기관을 동원했다고 볼 수 있고, 다른 腑와 달리 ‘膀胱’과 개념이 모호한 ‘三焦’가 함께 사용된 것도 정리를 힘들게 하였을 것이다.

腑者也。上下三等，藏安且良矣。

a) 三焦와 鼻 및 六腑와의 연관성을 언급하고 있다.

b) 黃帝와 岐伯의 問答이다. 本篇의 원문에서 ‘本臟’의 내용을 引用하고 있으므로 시간적인 先後를 알 수 있다.

c) 顔面을 관찰하여 六腑를 診察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顔面과 腹部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코로 大腸을 살피고 콧구멍으로 膀胱을 살피고 코뼈대로 三焦를 살피는 것은 三焦를 大腸과 膀胱의 중간에 존재하고, 콧대 가운데가 솟아 있으면 三焦가 約한 것으로, 삼초를 臟象論적으로 표현하였다. ‘ 묽인(約)’ 것으로 三焦를 살핀다는 것은 三焦가 원래 通하는 것으로, 大腸과 膀胱의 중간에서 通하게 하는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本篇에서 各腑에 대하여 언급하고 연속적으로 ‘上下三等，藏安且良矣’이라 한 것은 三焦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⑬ 「營衛生會」, 「癰疽」 등.

「營衛生會」

黃帝曰 願聞營衛之所行，皆何道從來《皆何道從行》?  
岐伯答曰 營出于中焦，衛出于下焦《衛出于上焦》。

a) 中焦와 下焦(上焦)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다.

b) 黃帝와 岐伯의 問答이다. 시대적으로 볼 때 ‘岐伯派’는 ‘伯高派’보다 후대의 학파 인식되며, 本篇은 ‘伯高派’의 의학이론을 ‘岐伯派’가 정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sup>29)</sup>

c) 中焦는 營氣를 내보내고, 上焦는 衛氣를 내보낸다. 營衛의 소통을 上焦와 中焦가 담당한다. 黃帝의 물음이 營衛의 지나는 길에 대하여 岐伯은 上焦와 中焦는 길(통로)의 역할을 한다고 답하고 있다. 몸을 영양하는 것으로 衛氣와 대립되는 것은 營血이라고 본다면, 中焦는 생산된 營血의 길이 된다.

黃帝曰 願聞三焦之所出。岐伯答曰 上焦出于胃上口，竝咽以上，貫膈而布中，走腋，循太陰之分而行，還至陽明，上至舌，下足陽明，常與營俱行于陽二十五度，行于陰亦二十五度一周也，故五十度而復大會于手太陰矣。

29) ‘伯高派’의 三焦에 대한 논술은 『靈樞』「平人絕穀」에서 찾아볼 수 있다.

- a) 上焦와 橫隔膜의 관계성을 언급하고 있다.
- b) 黃帝와 岐伯의 問答이다.
- c) 다음의 문장과 함께 살펴볼 때, 上焦는 衛氣의 순행경로이다. 上焦가 胃上口에서 나와서 橫隔膜을 뚫고 위로 퍼진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上焦는 橫隔膜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黃帝曰人有熱, 飲食下胃, 其氣未定, 汗則出, 或出于面, 或出于背, 或出于身半, 其不循衛氣之道而出, 何也?

- a) 上焦와 身體表部와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다.
- b) 黃帝와 岐伯의 問答이다.
- c) 衛氣가 땀을 나게 한다고 하였는데, 열이 있는 사람이 음식을 먹었을 때 땀과 衛氣의 순행 일치하지 않는 것의 이유를 물었다.

岐伯曰 此外傷于風, 內開腠理, 毛蒸理泄, 衛氣走之, 固不得循其道, 此氣慄悍滑疾, 見開而出, 故不得從其道, 故命曰漏泄.

- a) 上焦와 衛氣의 연관성을 지적한 문장이다.
- b) 黃帝와 岐伯의 問答이다.
- c) 傷風으로 인해 긴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衛氣가 길을 벗어나 달려가게 되는 것으로, 일반적 상황이 아니다. 열이 있는 사람이 음식을 먹어 안으로는 腠理가 열리게 되는 상황으로 傷風으로써 땀이 나게 되는 것을 말한다. 上焦는 衛氣의 운행통로이며 경로를 뜻하며, 上焦가 腠理를 열고 닫아 땀을 조절한다.

黃帝曰 願聞中焦之所出. 岐伯答曰 中焦亦並胃中, 出上焦之後, 此所受氣者, 泌糟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于肺脈, 乃化而爲血, 以奉生身, 莫貴于此, 故獨得行于經隧, 命曰營氣.

- a) 中焦와 上焦 그리고 肺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다.
- b) 黃帝와 岐伯의 問答이다.
- c) 上焦는 胃上口에서 시작하여 水穀의 精微를 肺로 전수하여 衛氣를 포산하며, 中焦는 음식을 소화시켜서 上焦로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본편에서는 上焦가 中焦로 음식을 보내 주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中焦는 水穀을

受納하고 腐熟시켜 糟粕을 먼저 내려 보내고, 津液을 썩서 精微를 변화시켜서 肺脈으로 올려 보내는 장소가 된다.

黃帝曰 願聞下焦之所出. 岐伯答曰 下焦者, 別迴腸, 注于膀胱, 而滲入焉. 故水穀者, 常并居于胃中, 成糟粕, 而俱下于大腸, 而成下焦, 滲而俱下, 濟泌別汁, 循下焦而滲入膀胱焉.

- a) 下焦와 膀胱의 관계성을 언급하고 있다.
- b) 黃帝와 岐伯의 問答이다.
- c) 下焦는 膀胱을 포함하니 膀胱에 물을 대고 스며들게 한다. 中焦에서 썩거기를 만들어서 大腸으로 下輸하면 물을 빼내어 膀胱으로 보낸다. 下焦의 기능은 물을 모으는 膀胱이 중심이다.

黃帝曰 善. 余聞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 此之謂也.

- a) 上焦, 中焦, 下焦의 기능을 언급하고 있다.
- b) 黃帝와 岐伯의 問答이다.
- c) 三焦의 형상을 ‘霧’, ‘漚’, ‘瀆’(구체적으로 설명)의 형태로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다. 『類經』에는 이에 대해 ‘霧’는 ‘우주 공간(天)의 안개’으로, ‘漚’는 ‘수면 위의 물거품’으로, ‘瀆’은 ‘떠나가서 되돌아오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였다.<sup>30)</sup> 그리고 이것은 물질의 三相(phase)으로 水穀이 변화된 ‘宗氣’, ‘津液’, ‘糟粕’의 형태를 상징한다.<sup>31)</sup>

黃帝曰 願聞中焦之所出. 岐伯答曰 中焦亦並胃中, 出上焦之後, 此所受氣者, 泌糟粕, 蒸津液, 化其精微, 上注于肺脈, 乃化而爲血, 以奉生身, 莫貴于此, 故獨得行于經隧, 命曰營氣.

- a) 中焦와 上焦 및 胃, 肺와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다.

30)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61. “如霧者, 氣浮於上也. 言宗氣積於胸中, 司呼吸而布於經隧之間, 如天之霧, 故曰上焦如霧也. 漚者, 水上之泡, 水得氣而不沉者也. 言營血化於中焦, 隨氣流行以奉生身, 如漚處浮沉之間, 故曰中焦如漚也. 瀆者, 水所注泄. 言下焦主出而不納, 逝而不反, 故曰下焦如瀆也.”

31) 李建民主編. 山田慶兒 著. 中國古代醫學的形成. 臺北. 東大圖書公司. 2003. p.513. “在胃中被消化了的食物, 分成宗氣, 津液, 糟粕, 由三個隧道出來.”

b) 黃帝와 岐伯의 問答이다.

c) 中焦는 胃의 가운데와 함께 한다. 中焦는 水穀을 受納하고 腐熟하여 精微를 만들어내어 肺로 보내어 營氣인 피를 만들게 하므로 營血의 통로가 된다.

黃帝曰 願聞下焦之所出。岐伯答曰 下焦者，別廻腸，注于膀胱，而滲入焉。故水穀者，常并居于胃中，成糟粕，而俱下于大腸，而成下焦，滲而俱下，濟泌別汁，循下焦而滲入膀胱焉。

a) 下焦와 胃, 廻腸 및 膀胱과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다.

b) 黃帝와 岐伯의 問答이다.

c) 下焦가 糟粕을 廻腸에서 나눠 膀胱으로 灌溉하는 과정에 관련한다는 것은 下焦가 大腸과 膀胱의 사이에 위치해 水液代謝에 관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癰疽」

黃帝曰 余聞腸胃受穀，上焦出氣，以溫分肉，而養骨節，通腠理。中焦出氣如露，上注谿谷，而滲孫脈，津液和調，變化而赤爲血，血和則孫脈充滿，乃注於絡脈，皆盈，乃注於經脈。

a) 上焦、中焦와 腸、胃、肌肉、骨、關節、孫脈、絡脈、經脈、腠理 등과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다.

b) 黃帝와 岐伯의 問答이다.

c) 中焦에서 腐熟된 水穀의 精微는 上焦를 통해 全身으로 퍼져서 陽氣의 기능을 한다. 上焦는 陽氣(또는 衛氣)를 내어서 溫煦하고 營養하며 汗出하고, 中焦는 이슬과 같은 氣를 내어서 몸을 촉촉하게 하고 피를 만든다. 上焦와 中焦와 下焦가 연결되어 있고 水穀의 기체 상태와 액체 상태인 精微가 全身에 운행되어 역할을 하고 고체 상태인 糟粕이 排泄되는 모든 과정이 水液代謝의 통로로 三焦의 역할이다.

### Ⅲ. 고찰 및 결론

본론의 연구를 통하여 『靈樞』에서 언급된 ‘上焦’、‘中焦’、‘下焦’、‘三焦’의 부위와 기능 및 개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上焦

부위는 橫隔膜 아래 안쪽인 胃上口에서 시작하여 胸腔의 肺를 통해 表部인 皮膚까지 포괄한다. 기능은 三焦의 인체 水液代謝 과정 중 수증기 상태인 五味를 받아 衛氣를 통하게 하고 皮膚의 소통을 주관한다. 陽氣를 宣布하여 체온과 땀을 조절하고, 이 외에도 수면과 마음상태에도 영향을 준다.

#### 2. 中焦

부위는 水穀을 受納하는 개념으로 胃, 水穀을 腐熟하는 개념으로 脾와 大腸의 앞, 水穀의 精微를 宣布하는 上焦의 시작 부위의 개념으로 肺의 아래를 포괄한다. 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中焦는 水穀을 받아들인다. 청탁을 나누어, 찌꺼기를 大腸으로 내려 보내고 기운을 포함한 거품형태의 정미로운 물질을 肺脈으로 올려 보낸다. 이 가운데 액체 물질은 변화되어 營血이 되므로 中焦는 營氣의 길이 된다.

#### 3. 下焦

부위는 廻腸과 膀胱 사이의 물이 머무르는 공간으로 廻腸에서 물을 받아 膀胱으로 보내는 전체를 포괄한다. 기능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下焦는 消化와 水液代謝의 근원이 된다. 또한 水液代謝 중 糟粕을 담당하여 膀胱에 물을 대고 스며들어하는 것을 주관하여 결과적으로 소변을 조절한다.

#### 4. 三焦

부위적 측면에서 三焦는 소화와 水液代謝에 관계하여 衛氣와 營血을 생산하는 것에 관계된 모든 인체 구성요소를 의미한다.

또한 三焦의 전체적 기능을 세분하여 보면 中焦는 水穀을 받아들이고 소화된 물질의 淸濁을 나눈다. 이런 소화와 水液代謝의 근원은 下焦에 있다. 기운과 맛을 포함한 精微로운 물질은 上焦를 통해 올라간다.

上焦에 올라간 수증기와 같은 물질은 衛氣가 되고 上焦가 이 氣를 영양하고 퍼뜨려 체온과 땀을 주관한다. 上焦에 올라간 액체 물질은 변화되어 營血이 된다. 營血은 衛氣에 비해 영양물질의 성격이 짙으므로 中焦는 營血의 바탕이 되고 길어진다. 中焦에서 나눠진 濁氣는 大腸을 통과하여 고형의 물질은 대변으로 배출되고 액체 부분이 膀胱으로 스며들어 가는 간다. 이러한 과정을 주관하는 下焦는 水液代謝 중 액체 상태를 관장하여 膀胱으로 물 대어 소변을 조절한다. 그러므로 三焦는 水穀과 氣血의 통로로 水液代謝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5. 『靈樞』에서 기재된 三焦의 개념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膀胱과 관계가 있었고 上焦와 中焦 및 下焦로 구분되는 개념이 없었다. 이후 해부학적인 생리적 개념이 등장하면서 胃가 소화의 시작임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은 소화와 水液代謝의 중심 이론이 中焦에서 시작하여 上焦와 下焦로 진행되는 개념으로 맞춰지게 되었고, 기질적인 변화보다는 기능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춰진 三焦 이론을 확립하였다. 이후 三陰三陽의 이론체계가 확립되면서 經絡理論에 三焦의 개념을 포괄하여 이론적 완성도를 이끌게 되었다. 결국 三焦가 全身의 循環과 津液 및 小便 등의 水液代謝를 주관하여 營氣와 衛氣를 생산하여 人身을 滋養하고 護衛하는 이론적 체계를 완성하게 되었다.

## IV. 참고문헌

### <논문분류>

1. 박혁규, 맹웅재. 대한원전외사학회지. 1998. 11(1). p.331, 334.
2. 박찬국. 三焦와 相火. 서울. 대한원전외사학회지. 1988. 1(2). p.16.

### <단행본분류>

1. 최달영, 김준기, 염용하 공저. 金匱要略釋講. 동국대학교출판국. 서울. 2004. pp.35-36.
2. 李建民 主編·山田慶兒 著. 中國古代醫學의 形成. 臺北. 東大圖書公司. 2003. p.23, 511, 512, 513. pp.22-23, 27-28, 515-516.
3. 金達鎬 編譯. 黃帝內經靈樞. 서울. 醫聖堂. 2002. p.72, 343.
4. 李志庸 主編. 張景岳醫學全書.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52. .
5. 凌耀星 主編. 難經校注. 一中社. 北京. 1991. p.52.